



글·사진 : 편집부

제 8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개막 친환경이 대세!

행사명 : 제8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The 8th Korea Agriculture Expo)

주 제 : 그린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
(Green Food, Happy Consumer)

기 간 : 2009년 10월 23일(금) ~10월 27일(화)

장 소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주 최 : 전라남도

올해로 8회를 맞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가 지난 10월 23일 나주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그 성대한 막을 열었다. 27일까지 5일간 계속된 이번 행사는 '그린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라는 주제로 녹색성장 및 친환경에 중점을 두어 농업을 예술로 표현한 농

업예술코너, 향기식물, 쌀 이야기, 압화전시와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기술이 전시된 '생명예술관'과 친환경 축산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녹색축산관', 농산물 가공업체 전시 및 녹색성장산업 관련 기술 전시를 한 '녹색산업관'. 친환경 농자재 및 신종농기계를 전시·상담 및 판매를 하는 '농기업관'과 더불어 숲 향기 체험이 가능한 '산림환경관' 및 녹차 생산과 가공 등 전 과정을 소개하고,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녹차 문화관' 등 6개의 전시관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이 밖에도 도립국악단 공연과 타악공연으로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의 흥을 돋우며, 4-H과제발표회와 전통문화발표회, 전라남도농촌지도자대회 등 참여마당



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도는 수출계약 70억원, 약정판매 150억, 농산물 현장판매 등 230억원의 직접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월 23일 전남농업기술원 대운동장에서 행해진 개막식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외 31명의 도위원 및 박민수 전남농업기술원장, 각 교육계 인사,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박준영 도지사는 개회선언에서 “농업이 살아야 한다”

며, “식품은 사람이 살아하는데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20%를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지혜를 모아 전남지역의 농업을 더욱 활성화시키자”고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축사에서 전라남도의회 박인환의장은 “처음에 우려가 많았던 친환경 농산물은 현재 소비자들에게 선호되고,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라남도의 농업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있는 축하 메시지 낭독에서는 명예대회장인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긍지를 가질 것"이라고 농업인들의 기운을 북돋았다. 이날 행사에는 홍보대사 가수 최유나씨도 참석하여 행사장을 빛냈다.

전국의 농업인 및 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의 우수성 및 다양한 오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지회는 녹색축산관에 전시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전시장에는 친환경오리 영농조합법인이 시식 및 전시·판매 행사를 진행하였고, 영암지역부스에서는 코리아팔도가 시식·판매 행사를 하였다.

광주·전남지회 정정우 지회장은 "전시장을 찾은 사

람들에게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오리고기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지회 부스에서는 화인코리아와 신촌자연오리가 오리고기 시식·전시 및 판매 행사를 하였으





며, 모란식품과 코리아더커드의 제품도 전시되었다. 행사 첫 날 신선자연오리는 오리훈제 100여 마리의 판매고를 올리며 준비해간 물품을 모두 소진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날 행사를 찾은 학생 관람객들은 “오리고기를 평소에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역시 맛있다”는 반응을 보여 오리고기 훈제 제품을 통해 오리고기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친환경농산물전시장과 영암지역부스에서 실시된 오리고기 시식·판매 행사 역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모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외에 각 단체 및 시·군 행사장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대표적으로 박과 채소(호박, 박, 동과 등)채피언 선발대회로 전통 박과 채소의 다양성과 기능성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유전 자원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행사로 각양각색의 크기와 모양의 박과채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누에고치에서 직접 실을 뽑아보고, 전통 방식으로 치즈나 발효유를 만들어 보는 등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도 진행이 되었다.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진단을 위한 '이동 보건소' 운영과 곳곳에 손 세정제 비치 등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실시하였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현장 '택배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